

‘학습’ 시간 배분법을 활용하라

에듀후 입시교육컨설팅 대표 이현우

학습을 언급하는 책 중에 ‘6:3:1 학습법’이란 것이 있다. 60%는 실컷 놀고 30%는 교과서 위주로 공부하며 10%는 책을 읽는 스스로 학습법을 말한다. 달리 말하면 학원과 과외 공부로 제대로 전혀 놀 틈이 없이 뻥뻥한 하루를 보내는 것이야말로 아이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는 3년차 햇병아리 교사라고 스스로 소개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이다. 처음 발령받은 곳이 ‘부자 동네’ 초등학교(분당 서현초등학교)인데 학생들의 성적이 꽤 좋은 것을 보고 역시 부자 동네라 다르다고 생각했다 한다. 쉬는 시간에는 상급 학년 공부를 하거나 심지어 중학교 과정을 공부하는 것을 보고, 역시 뭔가 다른 학교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이 모든 것이 ‘거품’이고 ‘사기’이며 아이들의 진짜 실력은 ‘미’ 이하였다는 것을 알게 돼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로부터 그는 사교육, 특히 강남식 사교육에 대해 엄청난 비판을 가한다. 맞다! 정말 맞는 말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뛰어 놀면서도, 학교 공부에 충실히 하고 - 특히 복습을 철저히 하면서 공부를 하는 30%의 시간만큼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논리를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모두 적용되는 일반적 인 법칙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게끔, 공부에 대한 인식 자체를 바꾸도록 하는 것은 초등학교 시기에 바로잡아야 하나, 이러한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학습법(정확하게 말하면 시간 배분율은 달라져야 한다.

내가 생각하는 적당한 배분율은 다음과 같다. 6(놀이) : 3(공부하기) : 1(독서하기)이 초등 학생의 시간 배분율이라면, 중학생에게는 6(배우며 공부하기) : 3(놀이) : 1(독서하기) 정도 의 배분이 적당할 것이며, 고등학생에게는 6(공부하기) : 3(배우기) : 1(놀이) 정도가 적당할 것이다. 대학 진학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결코 무작정 하루의 60%를 놀아라! 하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계속 책상에 앉아있다 해서 효율적인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공부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 학생이 우등생이 되기도 어려운 일이다. 여기에 공부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우리의 뇌(몸)는 적절한 휴식과 노동, 모두 필요로 한다. 처음에는 노는 시간을 길게 그리고 점차적으로 공부 시간을 늘려가면서 사이사이에 적절한 휴식과 놀이를 함께하라. “공부는 장거리 마라톤과도 같다.”라는 표현처럼 공부의 힘든 과정의 오르막 내리막을 쉽고 지혜롭 고 꾸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에 알맞은 시간적 배분을 통한 학습법을 찾아 실행하라.